

“최고의 경차는 모닝”

유럽 경차 비교평가 - 기아차, 현대차 1, 2위 차지



기아차 ‘모닝’과 현대차 ‘i10’이 유럽에서 최고의 경차로 인정받았다.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는 독

일 최고 권위의 자동차 전문잡자인 ‘아우토빌트(AutoBild)’지 가 최근 게재한 ‘유럽 대표 경차 6차종 비교 평가’에서 기아차의 ‘모닝’이 1위

를, 현대차의 ‘i10’이 2위를 차지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기아차의 ‘모닝(현지명 피칸토)’, 현대차의 ‘i10’ 외 피아트 ‘Panda’, 푸조 107, 스즈키 ‘Alto’, 다이하츠 ‘Cuore’ 등 총 6개 차종을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유럽 대표 경차 비교 평가”는 아우토빌트誌의 자동차 전문 평가원이 5월 말부터 6월 초까지 2주에 걸쳐 ▲내외장 및 차체, ▲구동계, ▲안락성, ▲주행성능, ▲경제성 등 5개 항목으로 평가했으며, 43개 세부 항목을 합산한 총 500점 만점 기준으로 기아차 ‘모닝’은 311점, 현대차 ‘i10’은 297점을 얻었다. (※ 6개 모델 평균 286점)

아우토빌트지는 1위를 차지한 기

아차 모닝에 대해 ▲실내 공간이 넓고 안락하며, ▲운전의 즐거움을 주면서도 높은 경제성을 지니고 있다며, “경차의 품질 수준을 새로운 경지로 끌어올린 모델”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아우토빌트(AutoBild)지는 독일 유력 자동차 전문지로 매주 70만 부를 발행하고 있으며, 유럽을 포함한 전세계 36개국에 자동차정보를 제공하는 점유율 70% 이상의 유럽 최고 권위의 자동차 전문 잡지로 작년 12월 “자동차 한일전 대한민국이 이겼다”며 현대차와 기아차가 최근 높은 품질과 상품 경쟁력을 바탕으로 유럽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고 전한 바 있다.

시에 잠재 고객들에게도 할리데이비스 문화를 전파한다는 방침이다.

할리데이비스 코리아 이계웅 대표는 “부산 및 경남 지역 라이더들에게 최고의 모터사이클 문화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할리데이비스 코리아는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라며, “향후 전국적으로 딜러망을 확충해 나감으로써 더 많은 이들이 할리데이비스 문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KJ모터스 여두영 대표는 “할리데이비스 코리아의 공식 딜러로서 부산 및 경남 지역 라이더들을 만나게 된 점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할리데이비스의 전통과 자부심을 그대로 이어 갈 수 있도록 딜러 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KJ모터스가 운영하게 될 할리데이비스 부산 딜러는 할리데이비스 모터사이클, 모터사이클 액세서리와 라이딩 의류는 물론 정비서비스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할리데이비스 코리아, KJ모터스와 부산 딜러 협약 체결



할리데이비스 코리아 이계웅 대표(좌), KJ모터스 여두영 대표(우)가 14일 ‘할리데이비스 부산점’ 딜러 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이날 협약식은 양사 관계자들과 함께 할리데이비스 코리아 용인점에서 진행됐다.

‘렉서스 전주’, ‘렉서스 창원’ 오픈 전북지역 및 서부경남 공략 위해

렉서스브랜드는 지난 5월 24일 경남 창원에 14번째 전시장인 ‘렉서스 창원’ (딜러: 동일모터스)을 오픈한 데 이어, 14일 전주에 15번째 ‘렉서스 전주(딜러: 더 프리미엄 효성)’를 오픈하고 본격적인 판매와 서비스에 들어갔다.

전주시 덕진구에 위치한 전북지역 첫 렉서스 전시장인 ‘렉서스 전주’는 231.4㎡의 면적에 차량 전시와 상담공간 등을 갖춘 전문 쇼룸이다. 특히 전시장 외관에서부터 고객의 동선을 고려한 공간 배치와 차별화된 인테리어 등 지역내 렉서스의 첫 영업공간으로서 ‘렉서스’만의 고급스러움을 느낄 수 있도록했다.

‘렉서스 전주’는 향후 전주지역을 비롯, 익산, 군산, 김제, 정읍 등 전라북도 지역 고객을 대상으로 ‘렉서스’ 판매를 강화하는 동시에 ‘렉서스 광주’와 연계하여 SA(Service Advisory) 및 테크니션 등 전문 기술 인력이 서비스 예약-상담-정기점검 등을 병행하여 서비스만족도 향상에도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에 위치한 ‘렉서스 창원’은 76㎡ 규모의 전시장과 함께 서비스센터를 갖추고 있다. 기존 ‘렉서스 부산’을 통한 부산-경남 지역내 브랜드 인지도를 바탕으로 마산, 창원, 진해의 통합 고급스러움을 느낄 수 있도록했다.



역에서의 고객 밀착 마케팅을 전개하겠다는 전략이다.

렉서스 브랜드 관계자는 “지난 1월부터 차례로 충남 천안, 서울 강서, 경기 일산, 경북 포항에 판매 및 서비스 네트워크를 오픈한 데 이어 전북과 서부경남에도 렉서스만의 품질과 감동을 느낄 수 있는 새로운 거점을 마련했다”며 “단순한 거점수의 확대에만 그치지 않고, 딜러자체 전문 기술강사 양성교육 등 중장

기 거점확대를 위한 종합적인 경쟁력 강화를 착실히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렉서스 전주〉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1가 1276-9 삼전빌딩 1층 (080-236-7743) 〈렉서스 창원〉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봉암동 471-4(전시장: 080-858-7711, 서비스예약 : 080-858-7710)

‘BMW 모터라드 데이즈 2011’ 개최



BMW 모터라드는 지난 11일, 12일 서 모터사이클 라이더들을 대상으로 ‘BMW 모터라드 데이즈

2011(BMW Motorrad Days 2011)’ 행사를 개최했다.

복잡한 도시를 떠나 강원도 평창에서 1박 2일간 진행된 이번 행사는 BMW 모터사이클 라이더들과 가족, 친구, 연인 등 500여명이 참석해 모두가 함께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마련돼 더욱 뜻 깊게 진행됐다.

BMW 모터라드 데이즈 2011 행사장에는 최근 출시한 BMW의 프레스티지 그랜드 투어러 모델인 K 1600 GTL 전시를 비롯, 모터라드 제품들을 체험하고 구입할 수 있는 부스가 마련되었으며, 게임 및 퍼포먼스 등 가족단위 고객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었

다. 저녁에는 BBQ 파티를 비롯해 댄스, 전자 현악, 밴드 공연 등이 펼쳐져 이번 행사의 열기를 더욱 뜨겁게 했다.

특히 이번 행사는 평소 모터사이클 문화를 접할 기회가 없었던 일반인들에게 함께 즐길 수 있는 모터사이클 문화를 알리고, 새로운 레저 문화 정착을 위해 마련됐다. BMW 모터라드 조성연 이사는 “BMW 모터라드는 매년 정기적으로 패밀리 투어, 라이딩 스쿨, 모터사이클 라이더 미팅 등 건전한 모터사이클 문화 확산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다”면서, “또한 이번 ‘BMW 모터라드 데이즈’는 BMW 모터라드 라이더 뿐만 아니라 모든 라이더들을 위한 축제로 진정한 모터사이클 화합의 장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르노삼성자동차, SM7 후속 모델 이미지 공개



르노삼성자동차 (대표이사: 장마리 위트피제)는 올 하반기 출시 예정인 SM7 후속 모델의 사진을 지난 13일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한 사진은 후면부와 측면부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사진과 헤드램프를 포함한 전면부 사진이다.

SM7 후속모델은 르노삼성자동차와 <르노-닛산 얼라이언스>가 협력 개발한 준대형 세단으로써, 르노삼성자동차만의 차별화된 품질, 세련되고 정돈된 고급스러움, 안락함과

웰빙 그리고 운전의 즐거움을 구현한 차량으로 세련되고 당당한 유려한 프레스티지 세단이다.

동급 최대 전장과 긴 휠베이스를 돋보이게 하는 매끈하고 늘씬한 느낌의 측면부는 우아하고 세련된 이미지를 전달하고 있으며 과감한 패턴의 프레스티지 블랙 투-톤 18인치 알로이 휠은 강인하면서도 절제된 카리스마를 구현하였다.

미래지향적이고 파워풀한 후면부는 국내 준대형차 최초로 듀얼-트윈 머플러를 적용하였으며 트렁크

면의 크롬 장식과 리어램프의 획적인 연결은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연출하고 있다. 세련되고 당당한 이미지의 전면부는 단일 구조로 이루어진 라디에이터 그릴이 후드에서부터 전면 범퍼 바닥부분까지 연결되어 자신감 넘치는 이미지를 구현하며 전면 후드 캐릭터 라인과 맞닿아 있는 바이जे는 어댑티브 헤드램프는 컴팩트한 사이즈 안에 정교하게 세공되어 시대를 앞서가는 혁신적인 기술을 상징하고 있다

후속 SM7에 대한 정보는 SM7 티저사이트(www.allnewsM7.com)를 통해 지속적으로 제공될 예정이다.

르노삼성자동차는 르노-닛산 얼라이언스의 최첨단 기술을 바탕으로 변하지 않는 품질과 가치를 계승한 SM7 후속 모델 출시를 통해, 하반기 국내 준대형차 시장에 새로운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명실공히 한국 최고의 프리미엄 준대형 세단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밝혔다.

볼보트럭코리아, ‘2011 연비왕대회’ 개최

연비왕 차종창씨, 일반 승용차와 견줄만한 10.04Km/ℓ 연비 기록



볼보트럭코리아 민병관사장(사진 왼쪽)이 연비왕 차종창씨에게 부상을 수여하고 격려했다.

선진 기술과 우수한 품질, 그리고 차별화된 고객 서비스로 국내 대형트럭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볼보트럭코리아 (대표 민병관)는 지난 14일 자사의 트랙터(컨테이너 운송을 위한 트레일러용 차량) 고객을 대상으로 ‘2011년도 볼보트럭 연비왕 대회’를 개최했다.

올해의 연비왕으로는 대형 승용차와 견주어도 손색이 없는 10.04Km/ℓ의 경이적인 연비를 기록한 부산지역의 차종창씨가 선정되었다.

아울러 인천지역의 한호균씨와 대구지역의 김응춘씨가 각각 9.6Km/ℓ, 9.5Km/ℓ의 뛰어난 연비기록을 내며 매우 근소한 차이로 각각 2위와 3위를 차지하였다. 특히 이번 대회에서 1위부터 7위까지 참가자가 모두 9.3 Km/ℓ 이상의 연비를 기록하였다.

이는 지난 해 10월 스웨덴의 고텐버그에서 열린 아시아/유럽통합 연비왕 대회에서 우승한 김도균씨의 역대 최고 기록인 9.1Km/

ℓ 기록을 뛰어넘은 놀라운 기록이다.

또한 이 기록은 일반적인 대형 트랙터가 화물 트레일러 없이 주행할 경우 통상 4.0~4.5Km/ℓ, 정량 화물 적재 후 고속도로에서 정속 주행 시에는 2.8~3.2 Km/ℓ라는 것을 감안하면 더욱 놀라운 기록이다.

볼보트럭코리아의 민병관 사장은 “이러한 좋은 기록은 최근 높아진 운전자들의 연료절감에 대한 관심과 함께, 그동안 볼보트

럭이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펼쳐 온 연비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활동의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 2007년 국내 최초로 시작되어 올해 5회째 맞이하며 해가 갈수록 더욱 뜨거운 호응을 받고 있는 ‘2011년도 볼보트럭 연비왕 대회’에는 서울, 부산을 비롯한 전국 6개 지역에서 치열한 지역 예선전을 거쳐 선발된 총 13명의 상위 입상자가 결승전에 참가하여 치열한 접전을 펼쳤다.

기아차, 2011년형 모하비 출시

고성능 신형 S2엔진과 국내 SUV 최초 8단 자동변속기 적용

국내 SUV의 만능 모하비가 상품성을 대폭 업그레이드한 ‘2011년형 모하비’로 새롭게 태어났다.

기아자동차(주)는 고성능의 신형 S2엔진과 8단 자동변속기를 탑재 동력성능과 연비를 극대화하고, 안전 및 편의사양 등 상품성을 대폭 보강한 ‘2011년형 모하비’를 지난 14일부터 시판한다고 밝혔다.

또한 국내 SUV 최초로 8단 자동변속기를 탑재한 ‘2011년형 모하비’는 연비에서 기존(11.1km/ℓ) 대비 15.3% 향상된 12.8km/ℓ를 실현해 대형 SUV 최고의 연비 경쟁력을 확보했고, 유로5 배기가스 기준을 만족시키는 친환경성을 갖춰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혜택도 받는다. (2륜 구동 기준)

특히 이 차에 적용된 8단 자동변속기는 국내 100% 순수 독자기술로 개발된 후륜 구동형 신형 변속기로

▲연비, ▲가속 성능, ▲변속감, ▲소음·진동, ▲경량화 등 변속기의 성능을 평가하는 5가지 주요 항목에서 우수성을 입증했다.

이로써 ‘2011년형 모하비’는 국내의 주요 경쟁차를 압도하는 뛰어난 동력성능과 연비를 바탕으로 탁월한 경제성을 실현했다.

또한 내·외장 디자인으로 ▲기아의 패밀리룩 형상을 표현한 ‘다디에이터 그릴’ ▲메탈 실버 칼라의 ‘패션 루프랙’ 등을 전 트림에 기본 적용하고, ▲강인한 이미지를 부각시켜주는 ‘범퍼 가드’를 QV, KV 모델 트림에 기본 적용해 한층 업그레이드된 모습을 구현했다.

이 밖에도 ▲시동 직후부터 스티어링 휠을 따뜻하게 해주는 ‘히터스티어링 휠’ ▲스마트키를 지닌 운전자가 접근하면 점등하는 ‘도어 손잡이 조명’ ▲최적의 연비효율성을 유지하도록 차량 상태를 제어하는 ‘액티브에코 시스템’ 등을 적용, 편의성을 높인 것은 물론 ▲고객이 선호하는 ‘스노우 화이트필 외장칼라’도 새로 추가했다.

아울러 기아차는 ‘2011년형 모하비’에 ▲윤전석·동승석·사이드·커튼 에어백으로 구성된 6에어

백 시스템과 ▲눈길, 빗길 등 미끄러운 노면에서 주행안정성에 도움을 주는 ‘차동기어 잠금장치(협로 탈출장치)’ ▲급제동시 제동등이 자동 점멸하는 ‘급제동 경보시스템’을 전 차종에 기본 적용하고, ▲전방주차 보조센서’를 부착하는 등 안전성에도 세심한 배려를 기울였다.

기아차 관계자는 “2011년형 모하비가 고성능의 신형 S2엔진과 8단 자동변속기를 탑재해 동력성능과 연비를 한층 업그레이드하고, 안전 및 편의사양 등 상품성을 대폭 보강해 새롭게 태어났다”고 기대감을 밝혔다. 한편, 기아차는 2011년형 모하비 출시 이벤트의 일환으로 자동차·사진·레포트 등 레저 관련 동호회 회원 및 블로그 운영자를 대상으로 6월 16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체험 시승단을 모집할 예정이며, 우수한 시승기를 올려준 시승단에게는 최고 50만원 상당의 유류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다.

‘2011년형 모하비’의 가격은 ▲2륜 구동(3.0 V6 디젤)이 3,680만원~4,440만원 ▲4륜 구동(3.0 V6 디젤)이 3,915만원~4,700만원 ▲가솔린 4륜 구동(타우 4.6 V8)이 4,905만원이다.